

# '언어학적 주체사상'의 산물

## 북한 「현대조선말사전」을 보고

李秉根

서울대 교수·국어학

### 사회에 '복무'하는 언어

남·북한 언어의 異質化는 과연 심각한 정도인가? 요즘 많은 글들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언어 사이에 차이점이 크게 깊어지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때로는 "언어의 이질화는 곧 민족의 분화를 의미하므로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는 우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에 근본적인 장애가 되지 않을 수 없다"고 힘주어 말하기도 한다. 이러한 염려의 근거로는 「현대조선말사전」의 영인본에 따르면 "81년판 「현대조선말사전」과 이희승편 「국어대사전」을 비교·검토한 바에 따르면 13만 단어를 수록한 「현대조선말사전」에는 42만 단어가 실린 「국어대사전」에 없는 5만여개의 낱말이 실려 있는데 그 대부분은 어휘정리사업과 문화어운동의 산물이다"라는 데에 두고 있다. 이는 북한의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에서 나온 「현대조선말사전」(제2판)에다가 초점을 두고 한 말로서, 이에 따르면 13만 단어 중에서 8만 단어를 남·북한이 함께 하게 된다. 이희승편의 「국어대사전」에 초점을 맞춘다면 42만 단어 중에서 37만 단어가 같이 쓰이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셈이어서 그 기준 여하에 따라서 심각성의 정도가 달라지게 된다.

남·북한의 언어이질화 문제를 성급하게 논의할 일은 아니다. 이질화로 인한 언어차이가 그 대부분이 어휘정리사업과 문화어운동의 산물이라면 그것은 결국 이데올로기로부터 빚어진 것이든지 그에 바탕을 둔 체제·정책·제도 등의 차이로부터 빚어진 것일 수 '적화(赤化)'는 「국어대사전」에는 "①붉게 됨 ②공산주의 사상에 공명하여 그에 치우친 색채를 띠게 됨"이라는 언어사전적 풀이로 되어 있는데, 「현대조선말사전」에는 남한어로 실은 '적화'에 대하여 "붉게 만든다는 뜻으로 '혁명화되어 공산주의적인 것으로 됨'을 적들이 이르는 말"이라 풀이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적화통일'에 대해서는 "붉게 되는 곧 공산주의화되는 통일"이라는 뜻으로 남조선반동들이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인 우리 당의 자주적 평화통일방침을 헐뜯어 조작해낸 말"로 풀이하고 있다. 이러한 부류의 풀이는 머리말에서 언급하고 있는 "오늘 우리말은 혁명이 발전하고 사회가 진전되는데 따라 새로운 어휘와 표현들로 훨씬 풍부화되었으며 의미구조와 문법구조들이 더욱 제이고 언어체계 전반이 문화적으로 한층 세련됨으로써 주체위

업을 이룩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더 잘 이바지하게 되었다"라는 언어학적 주체사상에 따른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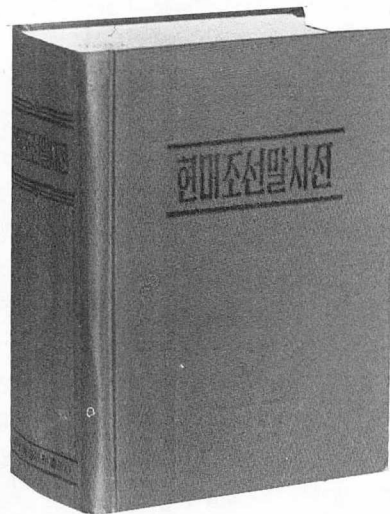
'언어'를 이와같이 생각한 북한에서는 '언어학'의 개념도 우리의 것과는 다르다. 「현대조선말사전」에서는 '언어학'을 "언어를 사회에 더 잘 복무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언어의 체계와 규범, 언어발전의 합법칙성을 연구하는 과학"이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언어정책과 관련되는 것이며 나아가서 언어사

**「현대조선말사전」은 언어사전의 성격 뿐만 아니라 그들 나름의 사상사전 또는 철학사전의 성격까지도 띠고 있어 사회·사상교육의 기능을 아우르고 있다. 그들 스스로의 표현을 빌자면,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아 편찬된 사전"이다.**

회학의 성격을 띠면서 언어학이 사회과학의 한 분야이기를 바라는 그런 것이다. 북한에서의 사전편찬방향도 이에서 예외일 수는 없는 듯하다.

### 사상·철학사전 성격 강해

북한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에서 1981년에 중사전 형식으로 간행한 「현대조선말사전」(제2판)은 우리에게 사뭇 충격적이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접해온 국어사전들은 흔히 인명·지명·사건명 등의 고유명사까지 포함된 백과사전적 성격을 지니거나 하나 기본적으로는 언어사전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와는 달리 이 「현대조선말사전」은 언어사전의 성격뿐만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의 사상사전 또는 철학사전의 성격까지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격을 띠게 된 것은 머리말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언어학에서도 주체를 세워 우리 말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며 사람들이 그것을 쓰는데서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라고 한 김일성의 뜻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김



일성동지의 탄생 70돐을 가장 뜻깊게 맞이하기 위하여 충성의 로력적 선물로 마련한" 것이 「현대조선말사전」임을 밝히고 있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사전이 사상사전의 성격을 띠고 있음은 「일러두기」에서 아예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주체적인 사전편찬 원칙과 리론에 기초하여 편찬한 새형의 우리 말 뜻풀이사전이다"라고 하였다.

요컨대 「현대조선말사전」은 주체사상에 입각한 사전의 성격을 띠는 것이며, 그리고 "우리 말 문화어어휘를 기본으로 하여 올리고 과학적이며 규범적인 풀이를 준 중사전규모의 우리말 규범사전"의 성격을 아울러 띠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전이 가지는 기능에다가 사회·사상교육의 기능까지 부여하기 위해서 표제항 설정에는 "근로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교양하고 새로운 현대적 과학기술과 높은 문화지식을 갖추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상교양자료들과 혁명적 문예작품들, 각급 학교의 교과서들과 대중과학기술도서들, 일반잡지들에 나오는 말마디들"을 풍부하게 올리도록 원칙을 세웠던 것이다. 이것이 「현대조선말사전」의 한 성격을 규정해주는 것으로, 표제항의 설정에 있어서 는 물론이고 定義 즉, 뜻풀이와 용례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귀인[명] ①인품과 덕망이 높은 존귀한 분. ㉠~을 맞이하다. ②(남의 불행과 고통을 보살피고 구원해주는 귀한 사람)이라는 뜻. |아낙네는 마치 산속에서 옛말에 나오는 귀인이라도 만난듯 황홀한 눈길로 어머

니를 지켜보다가 낮게 속삭였다. (장편소설 《피바다》에서) ③낮은 사회에서 : 《사회적 지위가 높고 귀한 사람》을 이르는 말. |《그런 당치 않은 소리는 하지도 마시오. 내가 보기에 암만해도 몸집이 아담한 귀인이 앉게 생겼소. 저 좁다란 등받이를 보우》(총서 《불멸의 력사》 중에서 장편소설 《혁명의 련명》에서)

이 경우 뜻풀이는 기본적인 언어적 의미와 시대·사회적 의미를 갈라 하였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우리의 국어사전들에서 전혀 볼 수 없었던 방식이다.

### 교육[명]

《교육이란 사람들을 지적체를 겸비한 사회적 인간으로 키우는 사업입니다.》(《김일성 저작선집》 6권, 277페이지)

사람들을 깊은 과학지식과 도덕품성과 건장한 체력을 갖춘 사회적 인간으로 키우는 사업. 사회주의에서 교육의 목적은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키우는데 있다. ㉠~과 교양. |교육은 혁명의 승패와 민족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언어사전에서의 이러한 미시구조는 북한의 사전들에서만 볼 수 있는 유일한 것으로 "김일성동지께서 개념이나 본질 또는 어휘적 뜻을 정식화하여 주신 울림말의 풀이는 ..... 교시를 정중히 모시고 그에 기초하여 뜻풀이를 하였다"라는 기본원칙에 따른 것이었다.

지금까지 「현대조선말사전」의 성격과 관련된 하나의 특징을 지적한 셈인데, 이것이 말하자면 그들 나름대로의 주체사상에 입각한 사전편찬의 태도로서 흔히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를 언급하게 한 요인이었다. 통일을 논의하는 현재로 보면 이러한 언어적 이질화는 그 방해요인이 될 것임에 틀림없으나, 이만한 정도는 한 언어의 방언 사이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데올로기에 따른 남·북한 사전의 차이점은 이밖에도 한자어와 고유어, 또는 표준어(문화어)와 방언 사이의 관계에서도 보인다. 이러한 차이점을 제외하면 남·북한 사전들은 일단 언어사전의 기능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요즘 흔히 염려하는 민족통일의 장애요인으로서의 언어이질화는 그리 심각한 것은 아닌 듯하다.